



금융감독원

## 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  | 2025.11.25.(화) 조간  | 배포  | 2025.11.24.(월)         |
| 담당부서 | 감사인감리국<br>감사인감리총괄팀 | 책임자 | 국 장 김시일 (02-3145-786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정주은 (02-3145-7862) |

##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

## 〈 주요 내용 〉

- ◆ 회계법인은 총 254개\*(+21개)이며,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6,422명\*\*(+593명)으로, 4대법인 소속 비중(46.3%)은 전기 대비 하락(△0.7%p)  
\* (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) 23개(+1개), (40~99명) 21개(△4개), (40명 미만) 210개(+24개)  
\*\*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회계사 수(27,211명, '25.3월말)의 60.4%에 해당
- ◆ 회계법인 총 매출은 총 6.0조원으로, 전기(5.8조원) 대비 3.8% 증가하였으며, 이중 감사부문은 증가세 둔화(4.7% → 3.2%)
- ✓ 부문별 매출은 감사(2.1조원), 경영자문(2.0조원), 세무(1.8조원) 順으로, 각각 전기 대비 3.2%, 3.1%, 6.6% 증가
- ✓ 4대법인 매출액은 총 3.0조원으로, 삼일(1조1,094억원, +8.4%), 삼정(8,755억원, +2.7%), 안진(5,074억원, △1.5%), 한영(4,645억원, △3.3%) 順
- ◆ 외부감사 실적은 총 36,756건으로 전기 대비 6.1% 증가하였고, 평균 감사보수는 46.8백만원(△4.5%)으로 전기(△1.2%)보다 하락폭 확대
- ◆ 진행 중인 소송금액(5,042억원)은 전기 대비 감소(△742억원)하였으며,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(3.4조원)은 증가(+1,305억원, +4.0%)

## [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]

- ① 회계법인은 감사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인력 운용, 보상 체계 등에 있어 감사품질을 우선시할 필요
  - ②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위협에 유의하여야 함
  - ③ 금융감독원은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외부감사 수행시 충분한 시간 투입, 독립성 유지 여부 등 감사품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
- ※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되며, 감사인 선임의 기초자료,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판단정보 등으로 활용 가능

## I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주요 내용

※ (분석대상) 3월말 결산법인(224사)은 '25.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(30사)은 '25.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

### 1 일반 현황

- **(회계법인 수)** '25.3월말 현재 회계법인 수는 254개(+21개)로 소형\* 회계법인 중심으로 증가

\* 공인회계사법 개정('24년)으로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회계사 수가 완화(10명→7명)

- **(규모별)** 소속 회계사 수 기준, 대형법인(100명 이상)은 23개(+1개), 중형(40~99명)은 21개(△4개), 소형(40명 미만)은 210개(+24개)

- **(등록 여부)**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법인\*(이하 '등록법인')은 40개\*\*로 전기와 동일하며, 규모별로는 대형 22개, 중형 17개, 소형 1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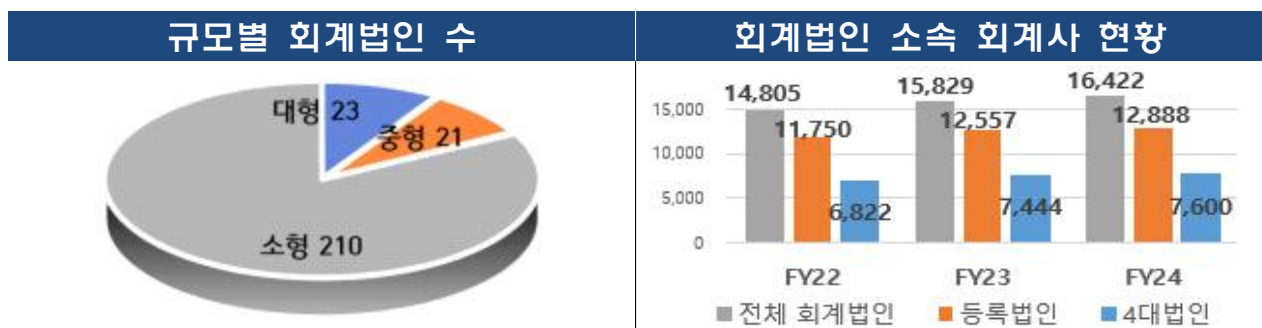
\* 상장회사 감사를 위해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공인회계사 수 최소 40명(지방 20명) 이상 등 인적·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

\*\* '25.7월 보현회계법인(소형)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취소로 현재 기준 39개 사

- **(등록회계사 수)** '25.3월말 현재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수는 16,422명\*으로, 전기(15,829명)보다 593명 증가(+3.7%)

\*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회계사 수(27,211명, '25.3월말)의 60.4%에 해당

- **(규모별)** 등록법인 소속은 12,888명(+331명, +2.6%)으로 78.5%를 차지하며, 4대법인 소속은 7,600명(+156명, +2.1%)으로 46.3% 수준



- **(경력 분포)**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중 5년 미만\* 경력은 31.0%(△0.9%p), 5~10년은 19.8%(△0.1%p), 10년 이상은 49.3%(+1.0%p)으로, 고연차 비중이 증가

\* 4대법인은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과반수(56.1%)를 차지하는 반면, 4대법인 외 회계법인은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9.3%에 불과

## 2

## 영업 현황

□ **(총 매출)** '24사업연도 회계법인 매출은 총 6조 281억원으로, 전기 (5조 8,050억원) 대비 2,231억원 증가(+3.8%)

○ **(부문별)** 감사 2조904억원(34.7%), 경영자문 1조9,789억원(32.8%), 세무 1조7,797억원(29.5%), 기타 1,791억원(3.0%) 順으로, 각각 전기 대비 +3.2%, +3.1%, +6.6%, △6.5% 증감

- 감사 부문 매출은 증가세 둔화가 지속된 반면, 경영자문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서 전환되었으며 세무도 전기보다 성장\*

\* <부문별 매출 증가율>

감 사 : (FY22) 16.7% → (FY23) 4.7% → (FY24) 3.2%

경영자문 : (FY22) 8.4% → (FY23) △4.2% → (FY24) 3.1%

세 무 : (FY22) 13.3% → (FY23) 5.7% → (FY24) 6.6%

## 회계법인 부문별 매출액 현황

(단위 : 억원, %)

| 부문   | FY2022 |       | FY2023    |       | FY2024    |       | 전기대비 증감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| 금액     | 비중    | 금액<br>(a) | 비중*   | 금액<br>(b) | 비중*   | 증감액<br>(c=a-b) | 증감률<br>(d=c/a) |
| 감 사  | 19,335 | 33.9  | 20,251    | 34.9  | 20,904    | 34.7  | 653            | 3.2            |
| 경영자문 | 20,041 | 35.2  | 19,195    | 33.0  | 19,789    | 32.8  | 594            | 3.1            |
| 세 무  | 15,783 | 27.7  | 16,689    | 28.8  | 17,797    | 29.5  | 1,108          | 6.6            |
| 기 타  | 1,856  | 3.3   | 1,915     | 3.3   | 1,791     | 3.0   | △124           | △6.5           |
| 합 계  | 57,015 | 100.0 | 58,050    | 100.0 | 60,281    | 100.0 | 2,231          | 3.8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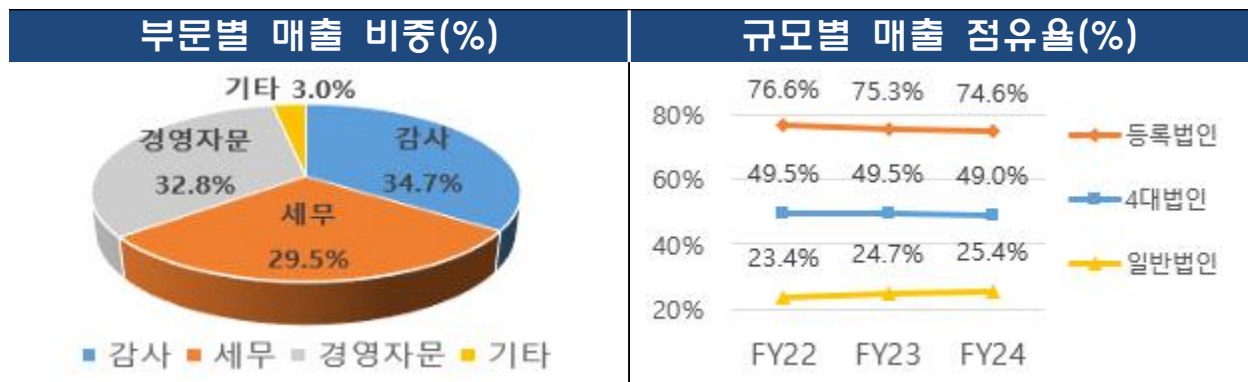
\* 회계법인의 총 매출액 중 각 부문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

○ **(규모별)** 전체 매출 중 등록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.6%이며, 4대법인은 전체의 49.0%를 차지

- 등록법인 매출액(4조4,963억원)은 전기보다 2.8% 증가하였으나, 점유율은 소폭 하락(△0.7%p)

- 4대법인별 매출액은 삼일(1조1,094억원), 삼정(8,755억원), 안진(5,074억원), 한영(4,645억원) 順으로, 각각 +8.4%, +2.7%, △1.5%, △3.3% 증감

- 4대법인의 감사 매출 점유율은 전기(50.5%)에 과반을 차지한 이후 유사한 수준(50.6%) 유지



### 3 외부감사 수행 실적

- **(외부감사 실적)** 전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실적\*은 36,756건(+6.1%)으로,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 등에 따라 증가 추세 지속\*\*

\*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별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포함) 감사 실적 기준

\*\* (FY22) 32,478건 → (FY23) 34,643건 → (FY24) 36,756건

- 등록법인의 외부감사 실적은 20,587건(56.0%)이며, 4대법인은 4,844건(13.2%)을 수행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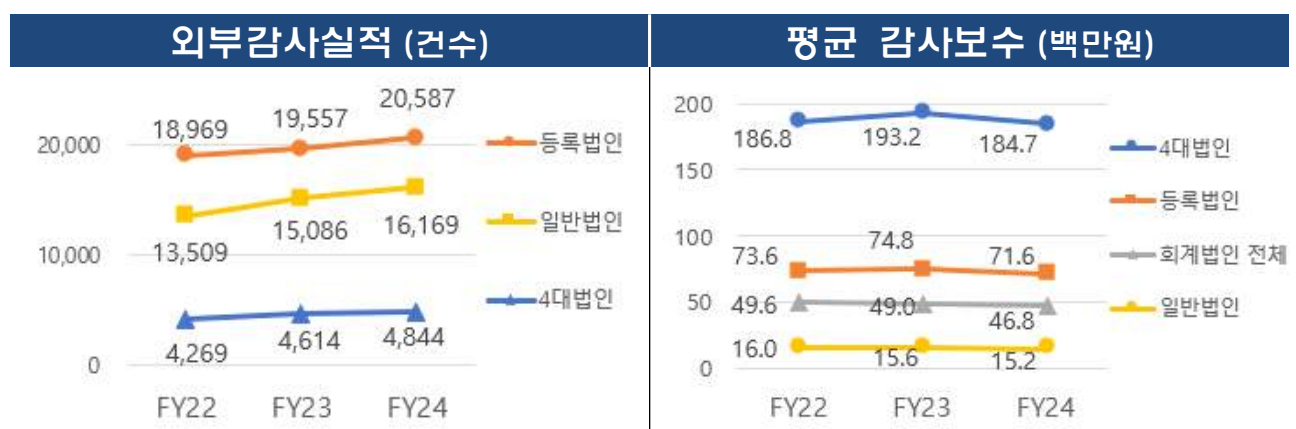
\* 4대법인의 상장회사 감사 점유율은 전기와 동일한 수준(37.1%)

- **(감사 보수)** 평균 감사보수\*는 46.8백만원(△4.5%)으로, '22사업연도 이후 하락 추세 지속\*\*

\*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법 상 법정감사 매출금액 ÷ 외부감사 회사수

\*\* (FY22) 49.6백만원 → (FY23) 49.0백만원 → (FY24) 46.8백만원

- **(규모별)** 평균 감사보수는 4대법인 184.7백만원(△4.4%), 등록법인 71.6백만원(△4.2%), 일반법인 15.2백만원(△2.1%)으로 모두 하락



## 4 기타

- **(품질관리 예산)** 전체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\* 3.0%이며, 전기(3.1%) 대비 0.1%p 감소

\* 전체 회계법인의 총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실 인건비의 평균

- **(임원 보수)** '24사업연도 총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는 41개 회계법인 소속 총 229명으로, 전기(221명) 대비 8명 증가
  - **(보수액)** 5억 이상 보수를 받은 이사 229명의 보수 평균은 7.9억원이며, 전기(7.6억원) 대비 0.3억원 증가
  - **(4대법인)** 229명 중 4대법인 소속의 5억원 이상 보수 이사는 139명(60.7%)으로, 전기 대비 5명 감소(△4.5%p)하였고, 보수 평균은 8.2억원으로 전기와 동일

회계법인 이사보수(5억원 이상) 공시 현황

| 구분             | 등록법인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일반법인<br>(18개) | 전체<br>회계법인<br>(41개)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4대법인 |     |     |     |     | 4대법인외<br>(19개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삼일   | 삼정  | 안진  | 한영  | 소계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인원 (명)         | 79   | 41  | 6   | 13  | 139 | 69             | 21            | 229                 |
| 1인당 평균 보수 (억원) | 8.6  | 7.4 | 7.6 | 8.4 | 8.2 | 7.1            | 9.1           | 7.9                 |

- **(소송 등)** '24사업연도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중인 사건은 총 74건이며 소송 금액은 5,042억원\*으로 전기 대비 742억원 감소

\* 안진 2,687억원(한화오션,舊 대우조선해양), 삼정 667억원(STX조선해양), 한영 471억원(교통은행), 다산 454억원(디아크), 삼정 84억원(삼성바이오로직스) 등

- **(종결)**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으로 피소되어 패소(일부패소), 화해 등 종결된 소송은 39건으로, 총 614억원\*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

\* 안진 574억원(한화오션,舊 대우조선해양,한국수력원자력 등), 삼정 35억원(STX조선해양) 등

- **(손해배상 자원)**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3조 4,033억원으로, 전기 대비 1,305억원 증가(+4.0%)하였으며, 지속 증가 추세\*

\* (FY22) 2조 8,193억원 → (FY23) 3조 2,728억원 → (FY24) 3조 4,033억원

## Ⅱ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

### 1 시사점

#### ① 감사보수 위주 경쟁보다 감사품질 우선시할 필요

- 감사보수 위주의 수입 경쟁 등 영향으로 회계법인 전체의 평균 감사보수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, 4대법인도 전기 대비 하락\*

\* (전체) (FY23) 49.0백만원 (△1.2%) → (FY24) 46.8백만원 (△4.5%)  
(4대법인) (FY23) 193.2백만원 (+0.3%) → (FY24) 184.7백만원 (△4.4%)

⇒ 감사인은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**감사품질** 및 **리스크 관리**를 **강화**하고 **충분한 인력·시간**을 **투입**하도록 유의할 필요

#### ② 비감사용역 수행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위험에 유의

- 회계법인의 총매출 중 감사 비중은 34.7%이며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, 경영자문, 세무 등 비감사 매출은 전기 대비 증가세 회복\*

\* <부문별 매출 증가율>

감 사 : (FY22) 16.7% → (FY23) 4.7% → (FY24) 3.2%  
경영자문 : (FY22) 8.4% → (FY23) △4.2% → (FY24) 3.1%  
세 무 : (FY22) 13.3% → (FY23) 5.7% → (FY24) 6.6%

⇒ 회계법인 등\*이 **비감사업무 수입시**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**독립성 훼손**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철저한 점검**을 수행할 필요

\* '24.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개정으로 회계법인과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(예: 컨설팅법인)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

### 2 향후 감독방향

- 금융감독원은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외부감사 수행시 충분한 시간 투입, 독립성 유지 여부 등 감사품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